

울산시, 퇴직임원 동원 화학산업 홍보

울산시 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는 7월14일 울산여고 과학탐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화학산업 홍보 행사를 열었다,

학생과 지도교사 등 55명을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 센터로 초청해 분석실, 시험생산동,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원 등을 소개하고 강의와 토론을 가진 후 SK에너지와 KP케미칼을 안내했다.

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는 울산시가 2009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석유화학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인사들을 화학산업 발전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조력자로 위촉해 설치했다.

현재 58명의 위원이 중소기업 종합 컨설팅, 석유화학 발전 로드맵 수립, 울산 기술네트워크사업, 녹색경영 서비스사업, 그린화학 생태망 구축사업 등 각종 석유화학 연구개발 과제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7/14>